

# 함평군 4-H연합회, 제1회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 농업·농촌의 미래가치 확산 위한 소통·화합의 장 마련 이상익 군수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

제1회 함평군 4-H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가 지난 3월30일 농업기술센터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4-H연합회 회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고, 농업·농촌의 미래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함평군4-H연합회 김승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체육행사가 진행됐으며, 시상식 및 폐회식을 끝으로 성료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 4-H회원 간 단합과 결속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래세대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4-H운동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를 모토로 하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다. 특히 청년농업인 영농4-H회회는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철 탄력근무 시행

4월~6월(3개월) 8시 조기출근  
6월 토요일 오후2시~6시 근무

무안군은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증진과 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번기철 탄력근무를 시행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침 8시 조기출근을 하고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말근무를 한다. 또한 아침 일찍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출고하는 사전출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농기계를 직접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운반서비스와 함께 영농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는 등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노동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임대료 50% 추가 감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탄력운영을 통해 원활한 농기계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번기 일순부족에 따른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목포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

목포시가 보행환경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보행·차행 진화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하는 사업을 3개 테마로 진행한다. 3개 테마로는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도로 정비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이며, 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테마인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는 보행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12개소 보도 정비,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블라드 40개소 정비 등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인도 내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인도에 튀어나온 요철을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두번째 테마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이다.

시는 노면 파손 및 균열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파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용당2동의 문태고에서 굿타이어 구간의 자전거도로 정비 등 모두 12개소 4,084m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번째 테마로는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아스콘 포장,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교량·육교·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5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암군 “상품권 유통, 현장관리 강화한다”

### 오늘부터 28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영암군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1,600여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 집중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영암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

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사용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는 당부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 3번째 컬러푸드 ‘천사빵’ 출시

### 시금치빵·퍼플빵·단호박빵·함초빵 등 빵튀기 4종 생산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는 오는 4월부터 컬러누룽지, 컬러식혜에 이어 새로운 컬러시리즌 컬러빵튀기를 관광지와 농협마트

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쌀이 주재료였던 기존제품과 같이 이번 제품도 신안쌀을

주재료로 지역특산물인 시금치, 단호박, 자색고구마, 함초를 넣어 다채로운 색깔의 컬러빵튀기인 ‘천사빵’을 만들었다.

천사빵은 초록빛의 시금치를 넣은 ‘시금치빵’과 보랏빛의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여 만든 ‘퍼플빵’, 노란빛의 단호박을 넣어 만든 ‘단호박빵’, 짙은 갈색의 함초를 넣어 만든 ‘함초빵’ 4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공색소를 쓰지 않고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천일염 등 천연재료만 사용하여 쌀의 고소함과 맛의 밸런스를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 간식으로 즐기길 좋다.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는 첫 번째 상품인 누룽지빵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으며, 두 번째 상품인 컬러식혜도 생산되는 대로 완판되어 새로운 컬러시리즌을 기획하게 되었다.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운영체인 맛잇섬영농조합법인인 생산은 물론 봄철 연이은 지역 축제장에서 신안 농특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홍보·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 영광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3월29일 군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공무원 및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상호 협조사항 ▲법령 개정사항 및 건축관련 주요 안내 사항 전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축행정 업무추진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관내 건축사무소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